

권력-지식의 재현 공간으로서 부산 발레:
푸코의 계보학적 접근을 토대로*

정 두 순**

차 례

1. 들어가며	5) 민족주의
2. 권력-지식의 그물망(1): 야생의 시대·제도화의 시대	3. 권력-지식의 그물망(2): 대학 발레와 동인 발레
1) 권력 복무	4. 권력-지식의 그물망(3):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2) 기록 소외	5. 나가며
3) 사회적 배제	
4) 예술을 위한 예술	

국문초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부산 발레를 푸코의 계보학에 토대를 두고 권력-지식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부산 발레의 근현대사를 성찰함과 동시에 현시대적 결핍과 구조적 모순을 통찰하여 부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4746). 아울러 본 논문은 한국문학회·한국시가학회 주최 상반기 학술대회 ‘부산 문화예술사의 재구성 4’ 발표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강사

발레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피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 발레를 세 시기 —여명기, 1980년~90년대, 현재—로 나누고, 시기별로 상이한 듯 보이나 부산 발레에 다차원적·중층적·미시적으로 영향을 끼친 권력-지식의 실체를 파헤친다. 첫째, 일제강점기와 한국동란, 군부독재를 겪으며 부산 발레의 여명기를 개척한 5인(김혜성, 김미화, 김향춘, 조숙자, 황창호)의 약사를 통해 ‘권력 복무’, ‘기록 소외’, ‘사회적 배제’, ‘예술을 위한 예술’, ‘민족주의’라는 다층적 권력-지식을 읽어내고, 이 권력-지식은 그들의 사망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시기로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중층적·미시정치적으로 작동한다는 문제의식을 설명한다. 둘째, 1980년대 생겨난 무용학과들과 동인 발레를 담론적 장치로 보고, 90년대 들어 그것의 효과로 활성화한 부산 발레의 르네상스를 ‘기만적 풍경’으로 해석한다. 이 시기 대학 발레 및 동인 발레는 권력-지식이 활성화하는 분할된 영토로 분석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연대를 외쳤으나 정작 그 분할된 영토 내부에 안주하며 영속을 추구하는 행보를 지속함으로써 종국에는 사라짐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시대 발레에 작동하는 권력-지식은 문화 민주주의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탈영토화하는 실천처럼 보이는 세련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설명된다. 이는 부산 발레 주체 및 지역 발레단들의 분자화는 물론 미시 편집증적 특성을 촉발·강화함으로써 현시대 권력-지식 장치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장한다는 말과 같다. 끝으로, 권력-지식의 작용점으로서 부산 발레를 직시할 때 비로소 분할의 테크닉을 정식화하고 발레 상품화를 추동하는 발레 생태계의 현실과 처절하게 대면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면을 통해서만 약육강식, 수도-중앙 중심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맞선 대안적 로컬 발레 생태계를 모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제어: 부산 발레, 계보학, 권력-지식, 통치성, 장치

1. 들어가며

최근 20여 년간 학적 제도권 내에서 확산해 온 로컬리티 담론은 그간 무가치하다고 여겨져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던 지역의 내재적 흔적들을 현시대적 맥락으로 호출하고 재구성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와 맞물린 담론적 실천의 전국적 확대는, 일견에는 ‘예속된 앎(savoirs assujettis)’¹⁾의 붐기 같지만,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²⁾에 종속화되어 체제 순응적 결과로 수렴되는 ‘포섭적 저항’³⁾의 단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성·부산성 발굴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
- 1) 권력-지식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려지고, 폄하되고, 위계의 바닥으로 밀려난, ‘보통 사람들의 앎’을 가리킨다.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24-25쪽.
 - 2) 푸코는 “자유주의 통치의 메커니즘을 “자유를 생산하고 불러일으키며 배가시키고, 더 많은 통제와 개입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도입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진단하며, 권력-지식이 “자유를 제압해버릴 정도의 파괴적 효과들을 발생”시키는 “자유 생산적 장치들”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분석한다.” 이에 주목하며 심세광은 “‘경쟁’은 통합에 의한 구축적 노력의 효과로 산출된 사회 통치의 원리”로서, “신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를 조정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려 들며, “시장 내에 경쟁을 구축”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야말로 “적극적 자유주의”이자 ‘개입적 자유주의’”를 통한 통치술”, 권력-지식이라고 규정한다. 푸코, 심세광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난장, 2012, 108-109쪽, 457쪽; 정두순, 「계보학적 관점에서 본 부산의 대학 발레 - 내치와 통치성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8),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3, 865쪽.
 - 3)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권력에 대해 외재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 1990, 109쪽. 저항은 권력 외부에서 작동하는 독립된 힘이 아니다. 저항은 권력이 형성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권력의 짝으로 생성되기에 저항의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권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권력은 저항을 자신의 통치성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저항이 권력을 전복하기보다 오히려 권력의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게끔 한다. 따라서 푸코가 말하는 저항은 권력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미시적 지점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균열을 일으키는 힘을 뜻한다.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 특이성을 보유하고 있다 판단되는 장소들을 선별, ‘박제된 로컬’로 상품화하여 호객(呼客)하는 상황을 심심찮게 목도하게 되는데,⁴⁾ 이는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식 체계를 동원해 특정 장소를 ‘로컬’로 명명하고 경계 짓느냐는 비판적 질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역성·부산성이란 박제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망과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실체가 아닌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부산의 지역성·부산성은 현재라는 역동적 무대를 마치 과거의 편린들로만 끝어다 담아 박제한 거대한 역사박물관에 포섭된 듯 보인다. 오늘날 상품화한 로컬이 범람하는 가운데, 로컬리티가 지닌 저항성은 예측된 삶의 해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증식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전장에서 마치 미시 권력이 원활히 작동하게끔 하는 권력의 촌촌한 그물망을 드리우는 역할을 오롯이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이는 특정 공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작동하는 ‘권력-지식’의 문제가 아닌가?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기제는 물리적 공간의 재편을 넘어 지역의 문화예술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기록의 가치를 추동하는 일련의 담론 형성 과정과 그 실천에서도 여지없이 작동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부산 발레’에 작동하는 권력-지식을 추적해 나간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행될 부산 발레의 과거사 연구가 자칫 ‘부산 발레사 박물관’을 구성하는 데 따르는 편린을 켜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에 지나지 않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서구 및 중앙[수도]⁵⁾ 중심적

4) 감천문화마을, 흰여울, 깡깡이마을, 비석마을, 소막마을 등 도시재생 및 문화적 도시재생의 실현에 따라 소비공간으로 변모되었거나 그리되기를 욕망하는 마을들이 부산에 편재해 있다.

5) 본 연구에서 상징하는 ‘중앙’은 복수성(plurality)을 지닌다. 이는 데리다의 공간적 해체론과 푸코의 권력론의 결합을 뜻하는 것으로, 단 하나의 지리적 수도

발레사 기술을 ‘진리’의 자리에 두고서 발레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는 데만 진력하는 국내 학적 풍토에 맞서, 지난 100년의 국내 발레사에서 논외로 취급되어 온 부산 발레를 ‘지금-여기’에 호출하여, ‘부산 발레사’라는 새로운 ‘장(champ, field)’을 구성한다는 학적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다만 부산 발레사 기술이라는 이 장은 결코 과거에 대한 복고적 향수나 낭만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보학’⁶⁾에 토대를 두고 권력-지식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담론과 담론적 실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지 전개 방식을 두고, 사료 축적과 통사적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발레사는 물론 한국 발레사조차 계보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사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존의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답을 우선적으로 해 두고 넘어가야겠다. 아카이빙, 아카이브, 통사적 정리, 해석이 역사를 기술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순서라고 한다면 이 연구는 아마도 100년 후에나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여전히 역사의 통사적 정리와 기술을 정전화할까? 니체는

(capital)라는 가시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자원과 제도 등의 다차원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통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지역 발레 생태계를 종속시키고 구조화하는 다층적인 ‘중앙 집중적(central) 권력망’까지 동시에 함의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위계와 미시적 권력 그물망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차원적·다층적 지배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또 고착화된 중심주의 구조를 해체적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도-중앙 중심주의(capital-central centrism)’ 개념을 새롭게 정초하여 사용한다.

- 6) “계보학이란 앗들을 과학 고유의 권력의 위계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것과는 달리, 역사적 앗들의 예측상태를 풀고 그것을 자유스럽게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하면 통일적이고 형식적이며 과학적인 이론적 담론의 강제성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반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업이다. 인식의 과학적 서열화와 그 고유의 권력의 효과에 대항하여 국부적 앗들 — 아마도 들뢰즈는 ‘소수의’ 앗이라고 말할 것이다 — 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질서하고 조각조각 찢긴 듯이 보이는 이 계보학의 기획 의도이다.” 푸코, 앞의 책, 1998, 28쪽.

『도덕의 계보학』에서 도덕은 신성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닐뿐더러 특정 계급의 이익과 원한에 의해 발명된 상대적 가치 체계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공시적 단면들을 통해 통시성을 이루는 역사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는 이미 역사 기술의 실천적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제기도 있을 것이다. 바로 역사 실증주의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푸코의 계보학적 접근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푸코가 자신의 철학을 고고학, 계보학, 윤리학으로 이동하면서 보여준 탐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대답을 갈음할 수 있겠다.

푸코가 계보학 이후 주목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몸, 권력-지식이 생산하는 주체이다. 이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맥락에 비춰 볼 때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고문서나 양피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면서도 그것들 너머에 있는 몸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레를 한, 그리고 하는 몸들, 발레 주체들이 된다. 푸코의 사상적 여정이란 맥락에서 담론의 지속적 각인과 그것의 부단한 실천, 이 모두를 ‘삶의 아카이빙(bio archiving)’으로 볼 때 이 몸들, 이 주체들이야말로 아카이브 그 자체이며, 또 그렇기에 너무도 훌륭한 분석 대상이 아닌가. 이 몸-주체들은 발레를 두고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실천하고 있을까? 이 몸-주체들에게 동일한 발레 고문서가 주어 진다면 그들은 그것을 두고 어떤 해석을 내놓을까? 만약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까닭은 그 몸-주체들에게 작동하는 권력-지식의 억압(pouvoir)과 저항(puissance)이 자아내는 역동성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삼고 있기에 본 연구는 사실 부산 발레사를 ‘정학(靜學)에서 동학(動學)으로’ 변태(metamorphosis)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1979년 이후 형성된 부

산의 대학 발레와 동인 발레를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에서 추적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부산 발레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단순한 미학적 성취가 아닌, 권력-지식이 몸-주체를 통제하고 양산해 온 과정으로 분석했다는 방법론적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 대상과 권력-지식의 작용점에서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대학 발레’ 연구가 푸코의 ‘내치(police)’ 개념을 바탕으로 대학이라는 제도적 공간 내 교수와 학생 간에 작동하는 권력 질서와 그 내면적 공모 관계를 ‘내부적 순응과 통치 메커니즘’으로 포착했다면, ‘동인 발레’ 연구는 동인 발레를 특정 몸-주체를 생산하는 ‘권력 장치’인 동시에 중앙 중심의 주류 체제에 맞서 지역적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저항 장치’로서 미학적 탈주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시각을 계승하고 심화하되, 분석의 시·공간적 지평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 연구가 1979년 이후의 제도화 시기에 국한되어 작동한 권력-지식 관계를 미시적으로 파헤쳤다면, 본 연구는 부산 발레 근현대사 전반을 관통하며 다층적으로 누적되어 온 권력-지식의 그물망을 거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단절과 연속성 속에서 왜곡되거나 고착화된 권력-지식 체계를 비판적으로 고발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현재 부산 발레가 당면한 구조적 한계와 과제를 숙고할 수 있는 학문적 장을 마련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유기적으로 잇는 동시에 본 연구만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지점이 된다.

발레는 결코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다. 시대의 에피스테메(épistémè)와 권력-지식이 투영된 역사적 담론의 구성물이다. 과거의 발레든 현재의 발레든 예외는 없다. 우리가 발레를 순수한 미학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위조차 실은 특정한 권력-지식 체계가 설계한 인식의 그물망 안을 한없이 부유하기 때문이다. 중앙이라는 팔루스(phallus)를 향해 모든 자원을 투여해온 부산 발레 생태계는 파편화된 내부 구조와 체

화된 약육강식의 논리에 매몰된 채 현재 내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역설은 부산이 한국 발레사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했음에도,⁷⁾ 중앙 중심의 학벌·제도적 선별 기제가 지역의 성과를 ‘국가적 수준’이라는 명목으로 전유(appropriation)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이름은 지워지고 스스로를 변방으로 타자화해 온, 이른바 자기오리엔탈리즘의 담론적 실천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발레가 국내로 유입된 이래의 역사적 특수성은 차치하더라도 중앙의 권력 기제가 지역 내부의 욕망과 어떻게 결탁하여 ‘자발적 소외’를 유도해왔는지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기록의 당위를 거세당한 채 중앙의 자장 안에서만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부산 발레의 근현대사를 계보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보편적 역사 기술에 맞선 일련의 저항적 행보로서 ‘다시 쓰기(réécrire)’가 된다.⁸⁾ 다만 이 행보 또한 인식의 그물망 안에 놓여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누락된 서사를 쫓는

7) 중앙 발레의 화려한 성장에 기여한 부산 출신 발레인들의 면면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그들을 수용하기에 부산의 발레 인프라는 극도로 열악했고, 공고한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는 그들을 중앙 소재 대학으로 진학을 강제하는 강력한 구조적 기제로 작동했다. 이러한 구조적 인력 유출과 그에 따른 지역 발레 생태계의 공동화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한없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8) 혹자는 ‘한국 발레사조차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발레사를 붙들고 씩씩하는 일에 딱히 의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는 지역 예술사를 포함한 지역사의 힘(puissance)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몇 가지 반문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한국 발레사 기술과 부산 발레사 기술에서 선후의 위계가 작동해야 하는가? 둘째, 한국 발레사의 공백을 메우는 데 왜 부산 발레사가 선행되어서는 안 되는가? 셋째, 부산 발레사를 기술하는 가운데 터득하게 되는 방법론을 한국 발레사, 실상은 서울 발레사에 가까운 그 발레사, 그렇기에 또 다른 지역 발레사에 불과한 그 발레사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오히려 부산 발레사 연구가 한국 발레사 기술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발레사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권력·지식을 정당화하는 담론적 실천은 아닌가?

것을 넘어 주류 담론이 은폐해 온 불연속적인 틈새와 배제된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부산 발레의 주체성이 해체되고 포섭되는 미시적 통치의 과정을 폭로할 것이다. 이로써 미약하나마 부산 발레사를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작동하는 ‘현재 진행형인 권력-지식’의 문제로 치환하고자 한다.

2. 권력-지식의 그물망(1): 야생의 시대 · 제도화의 시대

부산 발레의 태동기는 한국 발레가 그러하듯 해방 전후라는 시대적 격변기에 놓여 있다. 당시 부산은 귀환 동포와 피란 예술가들이 뒤섞이며 민족적 애환을 달래고 근대적 예술 담론이 발아하던 ‘교차점’이었으나, 현재의 한국 발레사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을 서울이라는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시적 거점으로만 기록할 뿐이다. 계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부산 발레가 독자적인 ‘장’을 형성할 가능성을 배태했음과 동시에 중앙 중심적 권력-지식에 의해 그 주체성이 소거되기 시작한 ‘결절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절점의 한복판에서 김혜성(1920~1988), 김미화(1922~1984), 김향춘(1924~1972), 조숙자(1928~2025), 황창호(1936~2023)는 부산 발레의 여명기를 형성한 인물들로, 일본을 거쳐 굴절된 형태로 유입된 서구 발레의 기술과 미학이 부산이라는 지역적 공간에 이식·정착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의 개별적 삶의 궤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부산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속에서 각자의 예술적 지향 및 실천 양식에 따라 발레 활동을 이어가며 부산 발레 생태계의 초기 지형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중앙 중심적 기록에 의해 지방의 사소한 사례로 격하됨으로써,⁹⁾ 그들이 품었던 주체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대의 권력-지식과 그

에 따른 실천의 양상 또한 매몰되어 왔다. ‘권력 복무’, ‘기록 소외’, ‘사회적 배제’, ‘예술을 위한 예술’, ‘민족주의’라는 다층적 위기 속에서 부산 발레의 여명기는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다룰 다섯 인물의 약사(略史)는 그들을 복고적 향수로 불러내거나 그들에게 낭만적 권위를 부여하는 데 할애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살아 낸 당대의 권력-지식에 주목하면서 부산 발레 생태계가 그간 외면해 온 ‘기원적 붕괴’의 실체와 마주한다.

1) 권력 복무

김혜성이 누린 부유한 가정환경은 그녀가 꿈꾸던 발레리나의 삶을 담보했다. 1960년 부산 최초의 민간 발레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프리마 발레단’을 창단했고, “1967년에는 부산 무용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 문화상[연예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¹⁰⁾

일본 유학이라는, 당시로서는 특수한 그녀의 이력은 일본에서 학습한 ‘신여성’의 삶을 지역 부산에서 영위케 하는 기제가 되었다.¹¹⁾ 문제는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진행한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 채록에 조숙자와 황창호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 발레의 역사와 활동 양상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채록연구자들이 구술자에게 유도하는 질문 방향이 중앙에서 활동한 발레인을 소환하는 데 대부분 할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조숙자 구술, 이희나 채록, 『제1차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무용교육과 무용창작 II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173』, 2009와 황창호 구술, 윤지현 채록, 『2011년도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무용교육과 무용창작 II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11: 황창호』, 2011을 참조.

10) 부산문화대백과사전,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2490.

11) 1957년부터 부산시 문화위원으로 일했으며, 노년에는 국제부인회 및 BPW (Business & Professional Women)의 회장직을 맡아 지역 여성들의 단합과 교양을 위해 애썼다. 하정화 외, 『부산여성사 I -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 335쪽.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길에 오른 여성이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 학습한 신여성 상, 그 가운데 현모양처 상과 어머니 상이 국내 남성 중심사회를 강화하는 장치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데 있다. 일본식 근대 여성 교육이 한국 여성을 군국의 어머니로 퇴행하는 역설적 삶을 살게 했다면, 해방 이후 시행된 여학교 교육은, 심지어 대학 교육마저도, 한국 여성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또 다른 역설적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혜성의 삶을 이와 동일선상에 놓고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¹²⁾ 다만 하정화(2009)가 『부산여성사 I -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에서 김혜성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현모양처로서 그녀의 삶 또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³⁾



<그림 1> 프리마 발레단 창립공연을 알리는 1960년 9월 18일 자 『부산일보』 기사, 『부산일보』 제공

한편, 김혜성은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그 정권의 관대한 지지자가 되

12) 일본식 근대 여성 교육 및 이데올로기적 실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을 참조.

13) 하정화 외, 앞의 책, 2009, 328-329쪽.

어 예술계의 중앙 중심적 재편에 복무하기도 했다.¹⁴⁾ 그녀는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방침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통폐합을 경험하게 되는데, 통폐합이 강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그녀는 이 통폐합이 근대적 위계 구조를 타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앙 중심적 위계 구조에 따라 재편된 무용계, 특히 예총이 극단적으로 중앙 중심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이익 집단으로 변질·강화되어 가는 과정의 극단을 목도하면서 그 행태를 비판하기에 이른다.

작은 집단(小群)의 특성이 뚜렷함에서만이 전체보다 선명한 성격이 창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보다는 지역문화사회의 특성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지금까지의 두대체소(頭大體小)의 병폐를 없앨 수 있다.¹⁵⁾

예총이 관변단체가 되어 중앙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이익 집단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개탄하며 비록 지역 예술 생태계를 위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손 치더라도, 이는 이미 그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공고히 한 중앙 중심적 위계라는 토대 위에서 흠어진 공허한 외침이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기만적 저항에 불과했다. 냉소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녀의 비판적 수사 이면에 숨겨진 가부장적 인식의 내면화와 권력 편향성은, 오늘날 중앙 중심적 위계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붕괴를 마주한 부산 발레 생태계의 맹아를 이미 그 시절 싹틔우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실천은 지역 발레의 독자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의 팔루스적 권위가 설계한 판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 했던 ‘예속적 주체’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라 논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항의 역설은 때로 권력을 더 강력하게 작동시킨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14) 하정화 외, 위의 책, 332쪽.

15) 하정화 외, 위의 책, 332쪽.

2) 기록 소외

서울 출신인 김미화는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서울과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 1957년 해군 장교인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와 1970년대 중반까지 정착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이주한 해 동광동에 발레 교습소를 열고 후학을 양성하며, 같은 해 제일극장에서 부산 최초로 전막 발레 <백조의 호수>를 선보이며 부산 발레 현장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병약했던 남편이 사망하자 실의에 빠져 방황하다 부산을 등지고 떠났다.



그림 2. 김미화의 <백조의 호수>(1957년), 『부산일보』 제공

그녀의 흔적은 1997년 8월 5일 자 『부산일보』¹⁶⁾와 2001년 9월 4일 자 『국제신문』¹⁷⁾에 실린 두 편의 추적 기사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는데, 이 기사가 얼마나 사실에 입각해 있는지, 그래서 또 얼마나 엄밀한 기록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녀에 대한 파편적 기록과 구전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수려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졌으며 체계적인 발레 교육을 제공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녀가 무대에 올린 <백조의 호수>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종합예술적 면모를 갖추었으며, 1962년 결성된 한국무용협회 부산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부산 시내 주요 대학에 강사로 출강하면서 부산 무용의 발전에 매진했다는 사실 정도이다.¹⁸⁾ 문

16) 노정현, 「부산 춤 텃밭을 일군 사람들 (7), 발레 김미화씨」, 『부산일보』, 1997. 08.05., <https://buly.kr/2qZTRNS>.

17) 신태범, 「부산문화 野史 (93), 무용가 김미화」, 『국제신문』, 2001.09.04., <https://buly.kr/882Crst>.

18) 위 두 기사와 부산문화대백과사전,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

제는 여성이자 이방인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일구어낸 그녀의 행보가 한국 발레사, 심지어는 부산 발레사의 맥락과도 분리된 채 개인적 서사로 휘발되어 버리고만 말았다는 점이다. 한국 발레사는커녕 부산 발레사의 ‘박제된 사(史)’조차 되지 못한 그녀의 삶은 중앙 중심적 역사 기술이라는 폭력성에 따른 ‘기록의 부재’와 더불어, 지역 사회가 외면한 이방인이라는 ‘역사적 무가치’함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망각해선 안 될 것은 한 발레인으로서 이룩한 치적에 대한 기록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부산 발레 생태계가 외부 자원을 내부의 지식 체계로 고착화하고 자산화하는 데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3) 사회적 배제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혼돈의 시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든 조국을 위한다는 미명하에서든 예술가들을 매료시키며 그들의 실천을 추동했을 근대성과 이념들, 즉 시대적 에피스테메와 상징적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혼돈 속에 던져진 피투(Geworfenheit)의 존재였던 예술가들이 보여준 기투(Entwurf)의 양태가 지독한 희극과 지독한 비극을 동시에 띠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추는 까닭은 아마도 지금의 우리가 분단의 현실조차 망각하는 시절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격랑 속에서 일본 유학과 정지수¹⁹⁾를 사사한 김향춘은 스승을 따라 월북한 후 인민군 군예대에서 활동했다. 이후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고향 부산에 정착해 발레 혼을 불태우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월북 및 이후의 행보가 스승의 권유에 따른 것인지 아

busan&dataType=01을 참조.

19) 1946년 한국 최초의 발레단인 서울발레단을 만들어 활동한 한동인(1922~?)과 러시아 정통 발레 기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 중 하나인 정지수(?~?)는 한국 발레를 개척한 1세대로 평가되지만, 각각 남북과 월북이라는 사건으로 활동상을 추적하기 어렵다. 후학에게는 불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니면 스스로가 내린 사상적 혹은 실존적 결단에 따른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러한 전력이 그의 창작 발레에 사상적 검열을 가하는 빌미가 되곤 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3. 태풍 이재민 구호 연합공연을 앞두고 김향춘을 소개한 1959년 10월 22일자 『부산일보』 기사, (좌)김향춘 (우)정일주, 『부산일보』 제공

김향춘은 발레와 관련한 정보가 거의 없던 시절 국외에서 어렵게 구한 발레 서적들을 참고해 가며 발레를 익히고, 여러 대상(아동, 무용학원생, 부산여고, 경남여고, 남성여고)에게 발레 기초와 다양한 춤을 가

르쳤다. 정형화한 발레를 넘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 발레를 시도 하면서, 1959년까지 5차례의 무용공연을 열었다. 발레의 형식을 고수하면서도 작품의 내용만큼은 민족적이면서도 동양적 색채를 지키려 애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작품에서는 주제 전달을 위해 “전투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월북한 그의 전력을 들어 “사회주의 사상의 반영이 아니냐는 사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²⁰⁾ 그는 경제적으로는 늘 궁핍했고, 부인이 식솔의 끼니를 위해 행상에 나설 때 제자의 집을 전전하며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월북했던 이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발레를 하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장으로서 식솔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자책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의 고단한 삶의 여정은 결국 고독사로 귀결되었다. 그의 비극적 삶은 중앙을 중심으로 승승장구하며 한국 발레의 대부로 기록된 임성남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²¹⁾ 임성남이라는 거목이 국립발레단과 등식화되며 찬란한 민족적 서사를 써 내려간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부산의 발레 생태계는 예술가의 고뇌 어린 삶을 포용할 만한 사회적·예술적 토양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4) 예술을 위한 예술

조숙자는 부산 지역 최초로 대학에 적을 두고 발레 창작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한 상징적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만주로 피난을 떠났던 소녀는 그곳의 일본인 교사에게 무용을 배웠고, 해방과 함께 스무 살 청년이 되어서야 귀향한 후 초등학교(부산진국민학교) 교사가 되었다. 한

20) 노정현, 「<부산 춤 텃밭을 일군 사람들-8> 발레 김향춘씨」, 『부산일보』, 1997. 08.14., <https://buly.kr/7QNAveF>.

21) 임성남(1929~2002)은 한국 발레를 이끈 대부로 국립발레단과 등식화되는 인물이다. 민족적 서사를 담은 <지귀의 꿈>, <처용>, <배비장>, <춘향의 사랑>, <왕자호동>, <고려애가>를 창작했다. 한국 발레사는 그를 한국적 창작 발레의 지평을 연 인물로 기술한다.

국어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을 배우며 무용반을 일구어야 했다. 이후 춤을 향한 갈증으로 한국무용과 남방춤을 박성옥²²⁾에게 사사하던 중, 이십 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발레에 심취하여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서울을 오가며 일본 유학과 엘리트이자 남성 발레리노로 명성이 자자했던 임성남을 사사했다. 이는 부산 지역 내부의 독자적인 발레 승인 체계가 부재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중앙의 상징적 권위를 수용함으로써 지역 내 발레의 전문성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초기 부산 발레의 구조적 의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행보라 하겠다.

마흔이 된 1969년에 조숙자는 ‘문교부 교수자격심사위원회 교수자격 인정 논문’을 통과하여 교수 자격을 획득하고 같은 해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의 전임강사가 되었다. 이는 조숙자 개인의 성취라는 차원을 넘어 부산 발레가 아카데미 체제로 포섭되는 신호탄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대학의 서열화라는 중앙 중심적 위계 구조 속으로 부산 발레가 본격적으로 예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조숙자는 1979년 부산산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1983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 대학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이듬해인 1985년 57세의 나이로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정년퇴임 때까지 일본의 발레 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전파했다. 1958년부터 1999년까지 개인 공연을 비롯하여 제자들로 구성된 ‘부산발레단’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2) 전남 목포 출신으로 근대 무용과 음악의 명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전통춤의 거장 한성준을 사사하면서 국악과 무용의 명인으로 이름을 얻는다. 최승희의 무용음악을 담당하여 작곡과 연주 활동을 병행했다. 1960년대 리틀엔젤스예술단의 무용레파토리를 직접 구성하여 세계무대로 진출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했으며, 해방 이후 신무용가들에게 철가야금으로 연주한 산조 춤 음악을 제공하여 한국무용의 공연 미학적 진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성기숙, 「전통명인 박성옥의 예술세계 연구」, 『한국무용연구』, 29(2), 한국무용연구학회, 2011, 1쪽.



그림 4. 1975년 10월 1일 자 『국제신문』에 실린 강이문의 조숙자 공연 평 ‘眞摯한 각고의 紋彩’, 『국제신문』 제공

주목할 점은 그녀가 선보인 창작 발레에는 당대의 ‘시대적 상흔’이 철저히 거세된 듯 보인다는 데 있다.²³⁾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 군부독재라는 격동의 세월을 관통하면서도 그녀의 무대에서 시대의 아픔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권력의 자장 안에서 순수 미학이라는 탈역사적 도피처를 선택한 예술가의 실존적 결단, 이를테면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 방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결단’에 대해 실로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아도르노는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지도 비판하지 않는 예술, 추악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예술은 현실을 왜곡할 뿐, 결코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조숙자에게는 시대의 아픔보

23)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 비평이기도 한데, 그녀의 제자이기도 한 본 연구자가 그녀의 작품에 출연하거나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소외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임을 밝힌다.

다 언제나 미적 대상으로서의 발레가 우선이었다. 미학적 발레를 향한 강력한 열망과 의지는 시대적 상황과 아픔에 대한 무관심으로 전도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한 사람의 발레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그녀가 보여 준 행보는,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기만성과 모순을 폭로하는 예술의 사회적·비판적 실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발레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척박한 부산에서 발레가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한 선학으로서의 공로마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민족주의

청주 출신 황창호는 군 복무 중 시공관에서 열린 임성남의 <장미의 정>을 보고 발레에 매료되어 그길로 발레에 투신했다.²⁴⁾ 이후 그는 송범의 문하에서 수학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공연 무대에 섰으며, 동아무용콩쿠르의 전신인 제2회 동아일보 신인무용발표회를 통해 신진 발레리노로 이름을 각인시켰다. 당시 많은 남성 무용인이 스승 송범을 따라 한국무용으로 전향하고 대학에 교수직을 얻어 적을 옮기며 제도적으로 안정을 획득했을 때, 황창호는 자신만의 발레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걸었다. 이러한 예술적 고집은 세속적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그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되었다. 그는 임성남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의 창단 멤버로 주요 배역을 소화하며 활약하기도 했으나, 임성남의 창작 스타일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미학적 불일치로 인해 그 체제 안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혹시 내가 만들을 때는 내 저 《지귀의 꿈》 그 지긋지긋한, 저 저,
춤은 안 닳아야 할 텐데 ...²⁵⁾

24) 사료 대부분은 이 공연을 송범의 발레 <백조>로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술채록에 따르면 황창호 본인은 이를 임성남의 <장미의 정>으로 기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체의 기억을 복원한다는 취지에서 황창호의 구술을 따른다. 황창호 구술, 윤지현 채록, 앞의 책, 2011, 18-22쪽.

황창호는 1969년 조숙자가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할 당시 그녀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에 내려와 그녀의 무용 학원을 도맡아 운영하며 정착했다. 1970년부터 양정2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용학원을 열어 후학 양성에 매진하면서,²⁶⁾ 1976년에는 창작 발레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담아낸 ‘부산창작발레단’을 창단했다.

‘진짜 한국적인 발레’, ‘흙냄새 나는 발레’를 구현하겠다는 그의 집념은 <을숙도>(1978),²⁷⁾ <동래부순절도>(1983), <바보온달>(1986)²⁸⁾과 같은 향토색 짙은 창작 발레로 결실을 보았다. 특히 <바보온달>에 대해 고(故) 강이문은 “발레의 한국적 토착화에 한몫한 작품”이라는 평을 남겼다.²⁹⁾ 황창호의 창작 발레는 중앙의 권위에 복속되거나 미학적 복제와 기술적 모방에 그치지 않고, 지역적 공간성과 민족적 정서를 결합하여 부산 발레만의 독자적 현장 지식을 구축하려 했던 발레 예술가의 실천적 분투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시의 정치·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작품 세계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25) 위의 책, 120쪽.

26) 당시 부산 광안리에서 발레연구소를 운영하며 서울을 오가던 김성일은 국립발레단(1974년 국립무용단에서 독립)에 일조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고, 조숙자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무용연구소 문을 닫았다. 1974년에는 발레연구소를 운영하던 송준영마저 광주로 떠나면서 황창호 무용연구소는 부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발레연구소가 되었고, 전성기를 맞았다. 한국무용이 강세인 부산지역의 특성상 한국무용연구소가 대부분이었고 전공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대적 특징이 무용연구소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각 무용연구소는 전문화보다 다양한 무용을 교습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던 특성이 반영된 까닭으로 보인다.

27) 낙동강 하구둑과 철새 도래지에서 벌어지는 생태 파괴에 주목하고 만든 작품.

28)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창작한 작품으로 원하지 않는 대본까지 썼다고 한다.

29) 강이문, 「발레의 한국적 토착화에 한몫」, 『부산일보』, 1996.10.18., <https://bully.kr/8emUCld>.

까지 주를 이룬 이른바 ‘민족발레’의 영향권 아래 놓였던 것은 자의든 타의든 필연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족발레는 민족 고유의 정서와 발레 테크닉을 접목한 창작발레로 임성남, 홍정희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는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은 발레 엘리트 계층의 민족의식과 자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부독재가 강조한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담론에 근대 발레 엘리트들이 적극 화답함으로써

형성된 담론적 실천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임성남의 발레 미학과는 결을 달리 했던 황창호의 작품 세계를 임성남의 그것과 미학적 실체로서 엄격히 구분 짓는 일은 난해할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황창호의 발레 미학과 작품 세계가 중앙의 관변 서사를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이라는 구체적 장소의 숨결과 향토색을 발레의 문법으로 변주했다는 데 있다. 황창호는 중앙이 설계한 ‘민족주의’라는 판 위에서 춤추면서도 그 틈새를 비집고 ‘지역·부산’이라는 현장에서 부산다운 창작 발레를 일구어낸 야생적 주체였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임성남이 발레계의 일약 스타로 급부상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갖게 된 불편함, 국립발레단 단장이 된 임성남의 창작 발레가 ‘한국적 발레’, ‘발레의 한국화’를 독점적으로 대변한다는 데 대한 미학적 거부감과 경쟁심은 그만의 독자적 발레 세계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수가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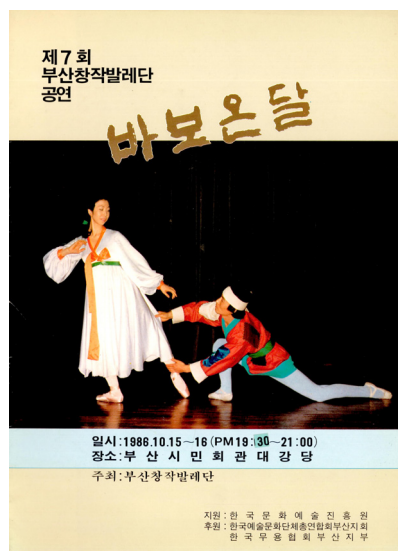


그림 5. 제7회 부산창작발레단공연, © 부산문화재단

욕망하진 않았지만 대학 교수와 학원 선생 사이의 간극을 한없이 벌리는 한국 사회의 아카데미즘과 엘리트주의는 그를 야생의 현장에 머물게 했다. 부산에 등지를 틀고 이어나간 11년간의 부산창작발레단 활동과 30년간의 발레연구소 운영은 중앙 중심적 위계에 편입되기를 거부한 그가 창작자로서는 한국적 창작 발레를 고집스럽게 탐구하고, 발레리노로서는 최후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냈음을 상징한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대학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발레계의 현실이 그는 마뜩잖았다. 불공정한 콩쿠르 심사나 대학 입시 부정이 관행처럼 번지는 현실에 개탄했으며, 불공정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기득권을 잡은 무용학과 교수들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끝 간 데 없이 치닫고 있던 당시 상황을 그는 좀처럼 견디기 힘들어했다. 무엇보다 지역 부산에서 키워 낸 인재가 중앙으로 떠나가는 현실, 그들이 설사 자기 지역에 남는다는 손 치더라도 그들을 담아낼 변변한 그릇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 부산의 척박한 현장을 목도하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결혼하는 제자의 주례도 서고, 부산지역 대학과 다른 지역에 발레강사로 출강하며 노년을 보내던 그는 2023년 7월 25일 향년 만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권력 복무, 기록 소외, 사회적 배제, 예술을 위한 예술, 민족주의에 포획된 부산 발레의 여명기는 상기한 다섯 인물의 생이 마감됨과 함께 소거되었는가? 문제는 이후 도래할 부산 발레의 지형 변화에서 이러한 권력-지식이 극복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거나 심지어 더 강력한 권력-지식 및 그것을 추동할 ‘장치(dispositif)’와³⁰⁾ 맞물려 활성화되면서 결과적

30) “푸코는 『감시와 처벌』(2003)에서 ‘장치’를 *appareil* 또는 *dispositif*와 혼용하며 사용하는데, 전자는 국가·사법 행정·치안 장치로, 후자는 규율·판옵티콘 장치와 관련하여 사용한다.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2009)에서 푸코는 권력-지식의 그물망에 포획된 우리가 권력의 외부가 아니라 권력이 발현되는 장소, 곧 권력의 장치에 위치한 채 살아가며, 그 장치에 대한 저항조차 권력과 저항이

으로는 부산 발레 생태계의 기형적 성장을 촉발하는 결정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권력-지식, 그리고 그 장치에 내재한 분할의 테크닉은 여명기 이후 부산 발레 생태계의 30년을 장악한다.

3. 권력-지식의 그물망(2): 대학 발레와 동인 발레

1979년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가 독립된 무용학과를 개설한 이래 경성대학교(1982년), 동아대학교(1983년), 부산대학교(1983년)가 잇따라 무용학과를 개설하면서, 부산의 대학 발레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표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심층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부산대학교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무용학과가 줄지어 폐과되었고, 30년간 지속되었던 부산 대학 발레의 시대는 화려한 종말을 고했다.

부산대학에 예술대학이 생긴다고 ... 이미자가 와서 가르치면 되겠네
... 여상 나온 애들도 부산대학에 오겠구먼 ...³¹⁾

1983년 부산대학교에 예술대학이 생긴다는 소식에 부산대학교 내 재직 중이던 교수들이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엄옥자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이 대화 속에는 1980년대 한국 사회에 팽배하던 엘리트 집단의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편협은 물론 계층 간 구별짓기와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아무렇지

존재하는 상태임을 주장한다. 푸코의 사유를 잇는 아감벤은 생명체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 펜, 글쓰기 언어 등 주체화 과정에 공존하는 모든 것을 장치로 확장한다.” 정두순, 앞의 책, 2024, 930쪽.

- 31) 엄옥자, 「부산 근·현대 무용사 집담회: 부산 근·현대 한국무용사 II 대담 녹취」, 2023.06.10.; 정두순, 앞의 책, 2023, 867쪽.

도 않게 내뱉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 비판적 의식보다 당대에 편재한 권력-지식에 예속화한 주체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 대학 발레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기만적 엘리트주의와 국가의 제도적 관리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위태로운 안착’이었음을 엄옥자 교수의 회고가 방증한다.

국가는 1980년대 이후 대입 본고사 폐지와 더불어 대학 교육의 대중화를 추동하며, 대학이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에 최적화하는 방향에서만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국가 정책 및 사업을 주도했다. 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 무용학과들은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 등장했으며, 특히 무용학과 신설은 타 학과 신설에 비해 초기 시설 투자 및 운영 유지비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대학 취학률 증가 및 등록금 수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경제적 이점이 있어 많은 사립대학이 선호하며 앞다투어 개설했다.³²⁾

1970년의 한국 대학 취학률은 8.4%로서 제한된 소수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던 것에서, 1980년 15.9%를 달성하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1995년 55.1% 그리고 2000년에는 80.5%를 넘으면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과와 학생 수의 증원의 일환으로 무용과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무용과는 교재나 공간 그리고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데에 다른 과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했으며, 학생 충원도 용이했다.³³⁾

부산에서도 1980년대 같은 목적으로 4개의 4년제 대학에 각각 무용학과가 개설되는데, 이는 외연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격상과 대학 교육의 보편화를 의미하지만, 내포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의 도구라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심지어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따

32) 정두순, 위의 책, 868쪽.

33) 박은혜, 「한국사회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86쪽.

른 대학 무용학과의 서열화는 중앙을 향한 과잉된 열망과 그에 따른 필연적 결여를 조장하면서 그것이 지역의 보편적 정서로 정착하게끔 만드는 효과마저 낳는다. 이러한 정서적 고착은 부산 발레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방의 타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기오리엔탈리즘의 담론적 실천을 조장하면서 지역 내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 중앙의 승인에 집착하는 예측적 주체의 삶을 반복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굴레가 되었고, 중국에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격랑과 함께 부산 대학 발레의 처참한 붕괴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부산 시내 무용학과 개설이 불러온 권력·지식의 효과는 상기한 바 외에 또 다른 층위에서 발휘되는데, 그 결정적 양상 중 하나는 대학 외부 발레 생태계의 고사이다. 조숙자와 황창호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대학이라는 공적 제도 안으로 거처를 옮겨 아카데미즘의 정점에 선 조숙자와 그 체제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여 현장에 남은 황창호의 행보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러한 주체들의 분열과 재편은 결과적으로 대학이라는 제도적 권위가 현장의 자생적 지식 체계를 흡수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대학 외부의 발레 생태계를 공동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대학 안으로 포섭되지 못한 발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대학 밖에 남기를 자처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대학 발레 성립 이전 부산 발레 현장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공연 문화를 주도하던 혜계모니를 빼앗긴 채 입시학원으로 전향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이 배출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의 자산으로 축적하기보다 중앙으로 보내는 공급처 역할을 도맡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중앙 중심적·학벌 중심적 논리가 날로 강화하는 환경에서 중앙으로 인재를 보내는 성과만이 발레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발레인에게선 변화한 발레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 일종의 주체적 행보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부산 발레 생태계가 스스로의 뿌리를 중앙의 팔루스적 권위 앞에 헌납한 비극

적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 발레만이 존재하는 오늘날, 오히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결합하여 시간의 흐름과 비례해 더욱 더 강화하기만 할 뿐이다.

부산의 대학 무용학과는 개설 초기, 수도권 대학에서 배출한 무용인들이 교수 사회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일찌감치 제도권 내로 안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주체들이다. 이들은 부산에 정착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에서 성취한 학벌이라는 상징 자본을 앞세워 부산 무용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며, 중앙의 표준화된 지식 체계와 위계 구조를 이식하고 공고히 하는 상징적 권력으로 군림했다. 부산 무용계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를 부산 무용의 르네상스로 회자한다. 그러나 이 시기를 계보학적으로 검토하자면 대학이라는 제도권 안에 안착하여 일시적인 풍요를 연출했던 ‘기만적 황금기’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그 황금기는 권력·지식의 효과라 재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수와 학생 간에 작동하는 상징적 폭력과 그것의 내면화, 다른 하나는 대학 간 구별짓기와 폐쇄성이라는, 다차원적·중층적·미시정치적으로 작동하는 담론적 실천이 역설적으로 낳은 공연 문화의 양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³⁴⁾ 교수 개인 공연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동인 발레단의 공연은 부산 발레 생태계에 양적으로는 전례 없는 풍요를 구가하는 듯 보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질적 빈곤을 초래했다.

34) 1989년 2월 25일 『부산일보』에 실린 「무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는 부산창작무용단이 주최한 좌담회를 소개하고 있다. 1990년대의 무용을 전망하는 가운데 자기개발·폐쇄극복·대중화방안을 핵심 과제로 “요약하면서 부산 무용계의 전공 간 구별짓기, 동문 무용그룹들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타 예술과의 교류를 통한 자기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안무가 중심에서 무용수 중심으로, 무대 중심에서 객석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두순, 앞의 책, 2024, 936쪽.

공연 실적을 우선시하는 무용학과
의 특성상 교수들은 저마다의 개인 공
연을 여는 데 열을 올렸고, 교수의 권
위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은 경제적 착
취나 고통을 토로할 새도 없이 교수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애를 쓰며 무대
에 서기를 욕망했다. 이는 4년의 대학
생활뿐 아니라 졸업 후의 안녕을 위해
서라도 거부할 수 없는 무용계 내부의
생존 문법이 되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해 작동하는 욕망 구조와 생존 문법
은 자신들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혹은
무엇에 예속되어 있는지를 은폐한 채
서로를 향한 공고한 “끈”을 드리우게
끔 했고, 그 끈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공모의 족쇄가 되었다.³⁵⁾ 부산

지역 내 대학 발레는 이러한 구조 속에 놓여 있었고, 학교 간 구별짓기
로 공고해진 폐쇄적 연대는 대학 발레가 섬 안에 갇혀 자기 복제적 미
학에 무비판적으로 안주하는, 한술 더 떠 그 안에서 열광하게 하는 결
정적 요인이 되었다.³⁶⁾ 자신들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걸러낼
내부적 자정능력을 키우지 못한 데 따른 결과는 현재 부산 발레 생태계
에 오롯이 전이되었다.



사진 6. 서울에 예속화한 부산 무용,
『부산일보』 제공

35) 김태원, 「부산춤의 사회적 환경의 변모: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공연과 리뷰』 88, 현대미학사, 2015.03., 112쪽.

36) 유명 무용교수들의 과점적 지배, 대학 중심의 무용 공연, 예술 지원금의 교수 독점 구조, 대학 간, 전공 간 교류 단절과 폐쇄성, 독립적 무용가의 활동 위축과 관련하여서는 이근수, 「무용계의 돈화(敦化), 가능한가? 폐쇄적인 대학, 긍정성을 잃은 무용지와 평론가」, 무용예술, 2004.03.,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2004_03/079.pdf를 참조.

무용만큼 교수와 제자와의 관계가 밀접한 예술분야가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춤 동인단체는 예술감독인 교수와 제자들의 인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³⁷⁾

<표 1> 부산 지역 동인 발레

연도	대학	동인 발레	창단 취지
1989	부산여대 (현 신라대)	땡브르 발레단	‘나만의 개성’을 기축으로 모임 예술감독 김정순 부산 최초의 대학 동인 발레 단체 1990년 7월 1일 창단공연
1991	경성대	그랑 발레단	춤의 활성화와 대중화, 학교·동인 단체 간 폐쇄성 극복, 춤의 지역성 확보 예술감독 신정희 1991년 7월 15일 창단공연
1993	동아대	동아 발레단	정통 클래식 발레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안무법, 새로운 발레 언어의 창작을 위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 부산 무용계의 활성화·대중화 예술감독 김복선 1994년 9월 30일 창단공연
1999	부산대	브이쉬 발레단	클래식 발레의 기반 위에 창작 발레의 신선함을 추구 발레의 대중화에 기여 예술감독 민병수 1999년 6월 20일 창단공연

교수를 정점으로 한 동인 발레는 구성원들의 창발적 사유보다 교수의 미학적 색채를 답습하는 수직적 창작 방식에 매몰되었고, 이러한 폐쇄적 활동은 새로운 발레 담론 형성 및 실천은 물론 독자적 미학을 추구하는 발레 차세대의 등장과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³⁸⁾ 1990년

37) 이상현, 「관행 ‘틀’ 깨기 새 몸짓, 동아발레연구회 정기공연」, 『부산일보』, 2001. 07.02.,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10702000343>.

대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동인 발레 공연 무대는 표면적으로는 분명 차이와 다양성이 판치는 아고라의 기능을 담당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담당 교수의 권위에 가려진 수동성과 폐쇄성, 강화된 지역주의와 가족주의에 의존하는 공연 감상,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운영, 선후배 간 위계, 비전문성 등을 공고히 하면서 2000년대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의 파고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요인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권력-지식 장치로 기능했다.

장치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세력 관계를 조절하고 발전시키면서 때로는 세력 관계를 방해하거나 안정시키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치는 권력 게임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며, 권력 게임에서 유래하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 권력이 지식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식도 권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지식을 떠받치고 역으로 지원을 받기도 하는 전략적인 세력 관계, 이것이 바로 장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장치라고 불렀던 것이 에피스테메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에피스테메가 담화적인 성격의 장치만을 의미한다면 장치라는 것은 담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 담화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³⁹⁾

부산 대학 및 동인 발레는 부산 발레 생태계의 다양한 예술적 실험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미학적 빈곤과 담론의 부재라는 현실만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대학이라는 권력-지식 장치 내부에서 대학 발레라는 사적 영토를 분할하고, 그 분할된 영토를 또 다른 권력-지식 장치 증식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대학 발레는 장치 그 자체로서의 역사, 권력-지

38) 김수진, 「공연 할수록 밀지는 장사 “촉망받는 신인 어디 없나요?”」, 『부산일보』, 2009.01.07.,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90106001216>.

39) 푸코, 콜린 고든 (편저),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 1993, 238쪽.

식의 효과로서의 역사 그 자체로 박제되었다. 물론 대학 발레라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⁴⁰⁾적 권력-지식의 통치술에 맞선 개인들의 저항이 부산 발레 생태계에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저항조차 대학 외부의 분할된 영토를 통한 권력-지식 장치 증식의 거점으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한 행보가 처절하리만치 자본주의적 권력-지식의 효과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대학 발레의 권력 구조와 동일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4. 권력-지식의 그물망(3):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대학 발레와 동인 발레의 몰락 이후 부산 발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몰락이 부산 발레 생태계 전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부산 발레의 현재는 과거의 기만적 황금기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문제는 이 풍요가 어떤 구조적 모순 위에 서 있으며, 그렇기에 또 얼마큼 위태로운가 하는 것일 텐데, 이 문제는 바로 모든 사회적 국면을 시장의 논리로 전화하는 “적극적 자유주의이자 개입적 자유주의”인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에 따른 부산 발레 생태계의 지형 변화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기만적 황금기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듯하다.⁴¹⁾ 다시 말해 대학 발레의 서열화와 발레 인프라의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 대학 발레와 동인 발레의 기만적 행보가 80년대 이후부터 부산 발레 성장을 가로막는

40) “오이코노미아란 인간의 행동, 몸짓, 사유를 유용하다고 간주된 방향을 향해 운용, 통치, 제어,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 앎, 조치, 제도의 총체이다.” 아감벤, 양창렬 역,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2010, 31쪽; 정두순, 앞의 책, 2024, 935쪽.

41) 심세광, 「역자 해제」, 푸코, 심세광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457쪽.

기제로 작동했다면, 현재 부산 발레 생태계에는 문화 민주주의와 탈영토화를 가장한 채 전 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실천이 부산 발레 생태계를 중앙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시장발(發) 자유는 ‘하는 자’와 ‘보는 자’의 경계를 허물며 오직 시장 논리로만 작동하는 발레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을 초월해 순회하는 수많은 발레 공연은 발레의 탈영토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앙의 논리를 이식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파괴하는 중앙 발레의 재영토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탈주를 가장한 대중의 욕망과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범람과 함께 기만적 해방의 풍경을 전 방위적으로 확산할 뿐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마치 긍정적 현상처럼 보이는 이 표면의 심층을 직시하기보다 상기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조차 무력화하는, 중앙-대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산 발레인들의 행보가 중앙 중심적 위계 구조의 위대한 승리, 즉 중앙 발레의 재영토화를 추동한다는 심각한 모순에 있다.

현재 부산 발레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은 유일하게 무용학과를 운영 중인 부산대학교 한 곳을 제외하면 크게 예술 중·고등학교와 입시 학원, 둘로 나뉜다. 두 교육 현장은 과거보다 치열해진 입시 환경에 놓였다는 공통점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을 수도권으로 보내느냐가 곧 자기 생존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변수는 한편으로는 부산 지역 내 발레학원 간 약육강식 논리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특정 학원 중심의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원의 정체성을 취미 발레학원으로 전향하게끔 유도하거나 애당초 취미 발레인을 대상으로 하여 학원이 개원하게끔 하는 현상을 낳는다. 취미로 발레에 입문했으나 전공으로 전향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수도권 진출이라는 미지의 결과를 위해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학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현상이 가속화하는데, 이에 따른 여파로 현재 부산 지역 내 많은 발레 전공 학원들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성장하는 취미 발레 시장은 전문 발레인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전문 발레인을 제한적으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부산 발레 생태계가 처한 구조적 한계는 취미 발레인들에게 얼마나 질 좋은 교육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자기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는 공고한 사회 구조는 지역이 외지에서 온 발레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 편의 공연물 생산조차 버거워하는 현실 또한 구축한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발레 대중의 안목을 만족시킬만한 발레 공연을 기획한다면 단연코 중앙, 심지어 국외 발레인에게 의지해야만 한다. 그렇게 성사된 공연을 보며 부산 시민들은 단일 국가의 국민으로서 발레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거나, 글로벌 시장의 수준 높은 발레 소비자가 된 자신의 역할에 커다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양상을 목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시감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발레라는 하나의 장르만 놓고 볼 때 발레의 대중화는 가히 축복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 또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발레 생태계 내부의 서열화를 더욱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자기 지역 발레의 소멸에는 무비판적이고 무감각적인 정서를 확산하고 고착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기만적 황금기’의 신자유주의적 진화이자 에토스(ethos)와 맘몬(Mammon)의 결합이라는 경이로운 통치술이 부리는 권력-지식의 마술이다. 단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해 모두를 배경으로 삼는 고전 발레의 폭력적 본성이 국내 발레 생태계를 물들이는 것은 바로 기만적 아름다움이다.



<그림 7> 유명 발레인을 앞세우는 부산 지역 발레단 공연

이러한 이유로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개인 발레단들에게는 유명 발레인을 경쟁적으로 섭외하는 일이 공연의 성패를 가르는 유일한 관건이 되었다. 자신의 창작력을 키우고 도전하기보다 유명 발레인에 의지해 홍보 효과를 올리는 것이 그나마 공연에서 발생할 적자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연이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생산된 공연이 부산 발레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고 선도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강화되는 것은 지역의 특이성과 서사에 주목하는 로컬 발레 생산의 불가능성이다. 이 불가능성은 팔루스와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하는 발레단 주체의 담론적 실천과 발레의 가치를 시장의 가치로만 환산하는 발레단 주체의 신자유주의적 실천이 결합한 ‘이중적 실천’에서 비롯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이중적 실천은 중앙과 신자유주의적 생산 양식에 기생하는 발레만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을 지역 발레 생태계에 유포·강화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지역 발레단이 현시대 권력·지식 장치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게끔 조장한다. 고로 현재 부산 발레 생태계는 로컬 발레의 부재를 넘어 그 생산의 불가능성을 내면화한 채 신자유주의적 자기 생존을 모색하는 아이러니를 끊임없이 연출한다.

상상력의 나래를 차단하며 탈주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권력·지식의 마술에 걸려 한없이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기에 급급한 우리, 무기력하

기 짝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구성하는 지금의 부산 발레 생태계는 어쩌면 앞서 비판한 부산 발레의 전사(前史)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래서 더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착시마저 불러일으키는 권력-지식의 그 물망에 걸려 화려한 비참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점점 침잠하기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5. 나가며

부산 발레를 계보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부산 발레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을 권력-지식의 관점에서 파헤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탐구 방식은 은폐되었거나 왜곡된 사건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직시하게끔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사실 어떤 아름다운 사건을 들추어냄으로써 그것에 생채기를 내는 효과가 발휘되려면 그 사건은 반드시 감춰져 있어야만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아름다움과 동의어로 삼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복고적 향수나 낭만적 권위를 부여하는 역사 서술 역시 계보학은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며, 그것은 과연 어떤 권력-지식에서 비롯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다시 권력-지식의 문제로 치환한다. 왜냐하면 계보학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 온 것에 의문을 품고 그것에 균열을 일으켜 탈주와 해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고는 어쩌면 부산 발레에 입히는 생채기쯤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기술이 오히려 부산 발레의 무가치함을 입증함으로써 부산 발레를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적 잣대 역시 보편적 진리로 자리 잡은 역사 기술에서 기인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본고에 드리울 비판적 잣대의 방향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요청한다. 바로 그곳에서 로컬리티

담론의 부상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부산 발레를 미학화하여 박제하는데 혈안인 현재의 부산 발레사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저항의 힘(puissance)을 내재한 로컬 발레 생산이라는 미래를 차단하고 중앙 발레의 영토화를 추동할 뿐이라는 은폐된 사실이 드러나 목도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부산 발레의 역사를, 본고는 시대별로 상이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권력-지식과 장치,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구성하는 역사로 기술했다. 그 까닭이 부산 발레 생태계에 탈주와 해방의 공간을 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기는 생채기, 곧 균열을 내기 위한 학적 시도임을 알아차리길 바란다.

4월 25, 26일 양일간 민주공원에서 열린 에게로(Egero)의 정기공연 <고립환상>을 본 춤 평론가 이상현은 “슬픔 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허수경 시인의 시구를 떠올리며, “이 공연의 중요한 가치는 결핍 자체를 콘텐츠로 삼은” 데 있다고 평한다.⁴²⁾ 지금 부산 발레 생태계는 시장의 논리에 완벽히 포섭되었다. 시장의 논리가 비추는 풍경은 그저 기만적인 시뮬라크르(simulacre)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풍경을 걷어내고 우리가 처한 결핍과 처절히 대면할 때, 이를 거름 삼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다. 그 도약은 우리의 전사 그리고, 현재 작동하는 권력-지식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얼룩져 있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리할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직시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아울러 부산 발레인들이 사적 영토를 분할해 권력-지식 장치 증식의 거점을 구축하기보다 현시대에 이르러 실로 무가치해져 버린 연대의 힘을 일으키고 그 연대의 힘으로 로컬 발레의 미학적 빈곤과 담론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기를, 그

42) 이상현, 「결핍을 거름 삼아, 고립감을 느끼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진솔한 위로의 춤: Dance Project EGERO 여덟 번째 정기 공연 고립 환상」, 댄스포스트코리아, Vol.129-1, 2026.05.05., https://dancepostkorea.com/new/board/review/pfm_view.php?search_part=b_title&search_pfm=&page=1&b_idx=755.

럼으로써 현재를 써 내려가는 지금의 부산 발레가 권력·지식의 효과로 점철될 내일의 역사 속에서 과거를 낭만으로 소환하는 사건으로 박제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그렇다면 사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진리로 여기며 나날을 이어가는 우리를 목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실로 언감생심, 맘먹기조차 힘들어 보이기만 하는 연대는 가능하거나 할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적·미학적 시도를 가능케 하는 ‘모종의 새로운 인식적 지도 그리기(a new cognitive mapping)’일 것이다. 그 인식적 지도가 내는 길은 사적인 이익의 울타리를 넘어, 권력의 미세한 그물망의 틈새를 파고드는 ‘성찰적 연대’와 ‘미학적 탈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규율에 길들여진 나의 몸과 사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배려(epimeleia heautou)’의 주체적 성찰에서 시작하여, 억압적 통치성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파레시아(Parrhesia)’적 연대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다만 기존의 배치를 전복하는 새로운 배치로 구성될 내일의 부산 발레 생태계 또한 언제고 새로운 권력·지식에 포획될 터다. 권력은 고정된 종착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재구조화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억압과 한 쌍인 저항의 힘이 분명 또 다른 내일의 발레를 추동할 것이라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권력의 그물망이 정교해질수록 그 틈새를 찢고 나오는 대안적 몸-주체의 전복적 몸짓 역시 더욱 치열하게 요동칠 것이다. 그리하여 지성의 비판만큼이나 의지의 낙관 또한 우리에게겐 필요하다. 본고가 시도한 계보학적 고발은 바로 그 완강한 지성의 비판 위에서, 다시금 저항을 꿈꾸는 의지의 낙관을 향해 내딛는 작은 첫걸음이다.

독일 철학자 블로흐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언급하면서 20세기에 왜 파시즘이라는 괴물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맹렬히 분석한다. 비록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발레와 발레 주체를 포획하는 권력·지식은 늘 존재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마

술을 부리며 끊임없이 이상 증식한다. 그래서일까. 사실 이 권력-지식의 자장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해 보이기까지 한다. 푸코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천착하면서도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권력-지식의 자장에서 해방되어 탈주체화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리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방법이었을 터다. 본 연구 또한 이 거대한 사유의 미로(labyrinth)를 헤매는 것은 물론, 그 복잡한 길에 술하게 놓여 있는 아포리아(aporia) 앞에 발목이 잡히는 때도 부지기수라는 점을 엄숙히 상기하면서 논의를 갈음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강이문, 「발레의 한국적 토착화에 한몫」, 『부산일보』, 1996.10.18., <https://buly.kr/8emUCld>.
- 김수진, 「공연 할수록 밀지는 장사 “촉망받는 신인 어디 없나요?”」, 『부산일보』, 2009.01.07.,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90106001216>.
- 김태원, 「부산춤의 사회적 환경의 변모: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공연과 리뷰』 88, 현대미학사, 2015.03., 111-120쪽.
- 노정현, 「<부산 춤 텃밭을 일군 사람들-8> 발레 김향춘씨」, 『부산일보』, 1997.08.14., <https://buly.kr/7QNAveF>.
- _____, 「부산 춤 텃밭을 일군 사람들 (7), 발레 김미화씨」, 『부산일보』, 1997.08.05., <https://buly.kr/2qZTRNS>.
- 부산문화대백과사전,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2490.
- 부산문화대백과사전,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
- 신태범, 「부산문화 野史 (93), 무용가 김미화」, 『국제신문』, 2001.09.04., <https://buly.kr/882Crst>.
- 엄옥자, 「부산 근·현대 무용사 집담회: 부산 근·현대 한국무용사 Ⅱ 대담 녹취」, 2023.6.10.
- 이근수, 「무용계의 돈화(敦化), 가능한가? 폐쇄적인 대학, 공정성을 잃은 무용지와 평론가」, 『무용예술』, 2004.03., 78-81쪽,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2004_03/079.pdf.
- 이상현, 「결핍을 거름 삼아, 고립감을 느끼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진솔

한 위로의 춤: Dance Project EGERO 여덟 번째 정기 공연 고
립환상, 『댄스포스트코리아』, Vol.129-1, 2026.05.05., [https://da
ncepostkorea.com/new/board/review/pfm_view.php?search_part=b
_title&search_pfm=&page=1&b_idx=755](https://dancepostkorea.com/new/board/review/pfm_view.php?search_part=b_title&search_pfm=&page=1&b_idx=755).

이상현, 「관행 ‘틀’ 깨기 새 몸짓, 동아발레연구회 정기공연」, 『부산일보』,
2001.07.02.,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
0010702000343](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10702000343).

조숙자 구술, 이희나 채록, 『제1차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무용교육과
무용창작 Ⅱ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17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舊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9.

황창호 구술, 윤지현 채록, 『2011년도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무용교육
과 무용창작 Ⅱ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11 : 황창호』, 한국문화
예술위원회(舊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1.

2. 단행본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_____, 심세광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
78~79년』, 난장, 2012.

_____,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 1990.

_____, 콜린 고든 (편저),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 1993.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심세광, 「역자 해제」,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
장, 2012.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역,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
장, 2010.

하정화 외, 『부산여성사 I -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부산여

성가족개발원, 2009.

3. 논문

박은혜, 「한국사회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성기숙, 「전통명인 박성옥의 예술세계 연구」, 『한국무용연구』, 29(2), 한국무용연구학회, 2011, 1-27쪽.

정두순, 「계보학적 관점에서 본 부산의 대학 발레 - 내치와 통치성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8),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3, 863-879쪽.

_____, 「계보학적 관점에서 본 부산 동인발레 - 권력과 저항의 장치」, 『문화와 융합』 46(1),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4, 929-944쪽.

<Abstract>

Busan Ballet as a representation space for
power-knowledge: Based on Foucault's genealogical
approach^{*}

Jung, Doo-So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Busan Ballet by critically illuminating it within the context of power-knowledge based on Foucault's genealogy.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gain insight into the deficiencie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present era, arguing that Busan Ballet must move toward a new path of advancement. To this end, the history of Busan Ballet is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the dawn, the 1980s-1990s, and the present. Through this chronological division, the study reveals the true nature of power-knowledge, which manifests differently across periods but consistently exerts multi-dimensional, multi-layered, and micro-scopic effects on Busan Balle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brief histories of five pioneers (Kim Hye-sung, Kim Mi-hwa, Kim Hyang-chon, Jo Sook-ja, and Hwang Chang-ho) who navigated the dawn of Busan ballet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and the military dictatorship. Through this, it identifies multi-layer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B5A16054746) in 2022.

** Lecturer, School of Glocal Culture Studies, Kyung Sung University.

dimensions of power-knowledge: ‘service to power’, ‘alienation from being recorded’, ‘social exclusion’, ‘art for art's sake’, and ‘nationalism’. Moreover, the study offers a critical perspective by arguing that this power-knowledge did not end with their deaths; rather, it has persisted into subsequent eras, continuing to operate in a multi-layered and micro-political manner to this day. Second, it views the 1980s dance departments and their derivative ballet coterie as discursive apparatuses (*dispositifs discursifs*), interpreting the 1990s renaissance of Busan ballet — revitalized by their effects — as a ‘deceptive landscape’. The university ballet departments and coterie of this period are analyzed as divided territories where power-knowledge was activated; this diagnosis stems from the fact that although they outwardly called for solidarity, they ultimately disappeared by settling within these divided territories and persistently pursuing permanence. Third, the power-knowledge operating in contemporary ballet is explained as a sophisticated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at creates an illusion of cultural democracy while appearing as a deterritorializing practice. This is synonymous with suggesting that by triggering and reinforcing the molecularization and micro-paranoic tendencies of Busan's ballet subjects and local dance companies, it conditions them to faithfully fulfill nothing but the tasks dictated by the contemporary power-knowledge apparatus.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only by confronting Busan ballet as a focal point of power-knowledge can we rawly face the reality of a ballet ecosystem that formulates techniques of division and drives the commodification of ballet.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such a bitter confrontation is a prerequisite for seeking an alternative local ballet ecosystem capable of resisting the law of the jungle, capital-central centrism,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Key Words: Busan Ballet, Genealogy, Power-knowledge,
Governmentality, Apparatus(*Dispositif*)

■ 논문접수 : 2026년 07월 23일

■ 심사완료 : 2026년 08월 12일

■ 게재확정 : 2026년 08월 16일

